



## 2011 AAAAI annual meeting을 다녀와서

인제의대 해운대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병주

올 2011년 AAAAI annual meeting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관문도시로서 오래 전부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였던 우리 한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이 삶의 터전을 시작했던 곳이다. 미국 내 다른 목적지를 위해 경유하기만 했던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벗어나 학회장인 Moscone center를 향하는 동안 주룩주룩 비가 내렸다.



그림 1. 학회가 열린 샌프란시스코 Moscone center 입구와 독특한 풍물인 케이블카

학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에게 항상 설렘과 긴장을 함께 가져다 준다. 특히, 이번 학회에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구연으로 발표하게 되어 더욱 그랬던 것 같다. AAAAI 학회는 알레르기 비전공자인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위 '뽕세계' 공부하는 학회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스케줄과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모두 최신 지견들을 다루며, 각 세션 종료 후마다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학문도 어떤 유행이 있는 것 같은데 AAAAI 학회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유행과 최근의 연구 경향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느낀 바는 아래와 같은데 이는 물론 개인적인 관심과 참여한 프로그램에 따른 것임을 말씀 드린다.

첫째, 개별적인 연구들간의 collaboration 및 consortium 형성, 특히, 천식관련 유전자 연구는 이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여러 인종을 아우르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동시에 검증되고 있다. 소위 연구분야에서도 'size is the matter'가 대세가 된 듯 하다. 또한 개별적인 연구들간에 서로의 결과들이 동일하게 재현되는지 검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권위 있는 학술지의 요청이 한 몫하는 듯하다. 따라서 잘 짜여 진행되어 그 결과가 검증된 연구들은 향후 자료 및 시료의 공유를 통

해서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이미 종결되어 결과가 발표된 연구들도 실제로는 아직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영유아 천명의 자연경과에 대한 핵심적인 Tucson study가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하여 진행되면서 청소년 및 성인천식의 위험인자 등을 제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NEJM을 통하여 천식치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던 CAMP study의 long-term follow up 결과들이 본 학회에서 발표되었다. 흡입스테로이드가 최종 키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결과와 달라졌고 mild-to-moderate asthma 상당 수가 severe asthma로 진행된다는 사실 그리고 lung growth 및 decline pattern을 결정짓는 초기 특성들이 발표되었는데 이전 연구들을 extension 하여 새로운 결과들은 만들어 내는 기술이 놀라웠다.

셋째, 면역관용이 요즘 연구 화두 중에 중요한 주제로 생각되었다. 알레르기 질환은 아직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고 증상 조절 수준이기 때문에 면역관용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매우 유망해 보였다. 이번 학회에서도 plenary session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 구강 및 장관면역을 중심으로 한 면역관용이 다루어졌다.

넷째, IVIG 탄생 30주년을 맞아 기획한(?) 듯 보이는 primary immune deficiency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질병의 연구를 통해 면역학적 지식의 많은 진보가 있어온 듯 하다. Plenary session 외에도 외래에서의 일차면역저하 환자 진료에 대한 별도의 course 등이 있었다.

다섯째,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던 주제에 대한 세션들을 선택하여 참석하였는데 epigenetics 및 TH<sub>2</sub> paradigm을 넘어서는 새로운 천식 치료전략 등의 세션이 유용했다.



그림 2. 구연발표 모습과 케이불카를 타고 부둣가로...

학회 참여의 즐거움은 새로운 지식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뿐 아니라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며 개인적인 친분을 나누는 일에도 있는 것 같다. 이번 학회에서도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 Mayo clinic에서 연수 중이신 김봉성 선생님(울산 의대 소아과), 이주석 선생님(성균관대의대 소아과), 양현종 선생님(순천향의대 소아과)을 뵈 수 있었고 National Jewish Center에서 3년 반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는 신유섭 선생님(아주의대 내과)의

근황도 들을 수 있었다. Jonhs Hopkins University에서 연수를 마치고 작년에 귀국하셨던 유진호 선생님(울산의대 소아과)은 연수 중의 연구주제로 새로운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함께 숙박을 하며 나누었던 교제는 학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몇 차례 강의를 위해 한국에 오셨을 때 보았던 Mayo clinic의 전용준 교수님과도 저녁식사를 하면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천식환자에서 소위 TH<sub>1</sub> 질환인 관상동맥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의 위험이 역시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Press conference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셨다.

또 학회기간 절반이상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아주 아름답고 독특한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을 감상하였는데 영화에서 보던 고풍스러운 케이블카를 타고 부두로 나아가 Golden gate bridge를 감상하였고 부둣가에 한가롭게 무리 지어 누어있던 sea lion을 바라보며 여기가 정말 샌프란시스코라는 실감을 하였다. 또한 편복양 선생님(순천향의대 소아과)께서 쓰셨던 크랩 하우스에서의 저녁식사는 구연발표를 끝낸 후의 홀가분함이 더해져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다. 크랩 하우스를 오는 과정도 식사 못지않게 무척 즐거웠는데, 땡땡거리는 종으로 크랙션을 대신한 전차를 타는 과정에서 우리 일행의 많은 수 때문에 차비(현금) 수납기가 무력화되면서 뜻하지 않게 무임 승차하게 되었고, 한번도 이러한 만원 전차를 보지 못했다던 현지인들에게 서울의 짝 찬 지하철 문화를 전수했던 일들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학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소의 위안과 아쉬움을 느꼈다. 필자에게는 약간의(?) public phobia가 있는데 이번 구연발표를 통해서 얻은 점이 많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괜한 일을 한 것인가 하는 회의감을 넘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도전하자”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인 듯 하다.